

홍천시니어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2023년 3월 (제106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현운재
 창간일 2014년 5월
 주소 강원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복지관 소식 / 구독자 시

“행복나눔빨래방”을 통한 또 하나의 색다른 나눔



◇준비한 이부자리를 포장하는 평시방 어르신

행복나눔빨래방과 평시방(임영웅 팬클럽 평생 영웅시대)과 맺은 인연은 참 특별합니다.



◇이불 선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평시방 어르신

지금부터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지난 한해 행복나눔빨래방에 근무하셨던 K

어르신은 거동불편으로 이불빨래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딱한 사정을 두루 살피셨습니다.

K어르신은 개인적으로 이불 후원도 하시고 임영웅 팬클럽에 가입하여 현재도 활동하고 계시며 회원분들과 함께 논의 끝에 행복나눔빨래방에 이불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단순한 취미활동으로 시작되었던 팬 카페의 활동이 지역 내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호관 기자(hokwan_park@daum.net)

그것이 진짜 부끄러움은 아닌 듯한데

이경자

시끄럽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나무를 간지럽게 만든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딱따구리 입장에서는

나무라는 것은 이미 자기들 사이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자기들의 놀이장이다.

딱따 부터 시작해서 딱-딱따-다- 까지

늘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다.

딱따- 부터 시작해서, 딱따- 딱따-글- 딱따-다- 딱따-딱-

차마 부끄럽다는 이야기는 나무들끼리는

이미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즐겨하는 말이다.

이것이 진짜인가?

내 부끄러움을 나 아닌 너에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부끄러움은 아닌 듯한데...

평범함과 특별함 그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

이성순

오늘 하루는 보통의 날, 평범한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어딘가에 가야할 곳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저녁에 돌아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 기분좋은 일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꿈꾸는 것은 어떤 누군가는 사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다른 누군가는 내게 “엉뚱이”라는 별명을 붙여준다

가끔씩은 어제의 사치여도 좋다.

이따금씩 오늘의 사치여도 좋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지나가고 내일은 다시 찾아오니까

실버자원봉사자 모집

모집안내

모집내용	모집부문	인원
60세이상 봉사에 열정이 있는 '어르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접수바랍니다.	의재발굴을 토대로 지역 사회에 발전적인 방향성 모색 토론	00명
지역두드림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치매,인지예방 프로그램 지도 활동	00명
미소천사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노인복지관 이용안내 및 프로그램실 관리	00명

모집기간 & 신청접수
 -모집기간: 2023.02.13~
 -신청접수: 내방 접수

문의 홍천군노인복지관 김서연 주임 430-8720

홍천경찰서와 함께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모집대상
 지역주민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상시모집**

교육일시
 매월 2, 4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3월부터 교육 진행

교육내용
 고령자 운전 성향 자가진단 및 분석,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 교육 후 이수증 발급

홍천군노인복지관 033-430-8710

CONTENTS



02 - 베이비붐 세대 주거

03 - 홍천농촌문화터미널

04 - 인물&생활칼럼

05 - 지역축제

06 - 협동조합

07 - 인터뷰&노인교통안전

07 - 인생칼럼

08 - 게이트볼, 미래금융



베이비붐 세대 주거

주택을 잡은 자, 주택에 잡힌 자



◇이런 집에서 고단한 셋방살이하는 가구들이 많았다.

정도는 조금씩 달라도 주택은 모든 세대에 걸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서 모든 노인세대는 주택에 목숨을 걸

다시피 한 세대이다. 집 없는 설움을 가장 처절하게 겪으며 살아온 세대다. 집 없는 설움이 제일 큰 설움이라고 했던가! 내 집이 없어 셋방살이하면서 열 손가락이 모자라게 이사를 다녀 본 세대다. 소원 중에 으름이 내 집에 문과 달아보는 것인 세대에게 집은 자부심이고 존재감이고 더 없이 든든한 버팀목이다. 내 집 장만하던 이야기는 한 편의 감동 드라마와 같다. 누가 이 짜릿한 맛을 알까?

집은 부동산이라고 쓰고, 내 삶의 전부라고 읽는다

요즘 젊은 세대는 집의 소중함을 덜 느끼는 것 같다. 집을 단지 거주공간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동산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라 아예 살 엄두를 못 내고 포기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추세라고 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기성세대 특히 노인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이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간절한 소망이다. 자신의 삶을 올인 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가치를 지닌 대상이다. 그래서 그 하나를 바라보고 기를 쓰고 달려온 세대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말할 수 없는 상대적 가치이다.

그것을 상대적 가치라고 말할 지라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목매고 달려온 세대의 애절함과 피눈물을 젊은 세대가 공유할 수는 없다 할 지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여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내 집 마련을 향한 애끓는 그리움과 한숨 가득한 짝사랑을 간직하고 이야기할 세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다 바치다시피한 그 애절한 사연을 누가 기억해 주겠는가!

지긋지긋한 이사, 그래도 젊었을 때는 그것도 낭만이였다

Y(66세)씨는 스물아홉에 결혼했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나이였다. 신혼살림을 아버지 집에서 시작했다. 전세방 얻을 돈도 없었지만 눈 딱 감고 한 3년 부모님 신세지면 전세거리는 마련

하지 않을까 싶었다. 아내도 그 정도는 견디며 살 요량이였다. 처음에는.

그러나 세상살이 특히나 시집살이가 어디 뜻대로 되랴. 고부간에 갈등이 켜켜이 쌓이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아내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고 울면서 날마다 채근했다. 3년은커녕 1년도 채 안돼서다. 당장 손에 쥘 것이 없으니 속만 타들어 가는데, 아내가 친정에서 돈을 좀 융통해 왔다.

화장실도 주인집과 같이 써야 하고 부엌은 바깥에 판자로 열기설기 엮어서 만든 단칸방을 전세로 얻었다. 화장실 사용도 주인집 눈치 봐야 하고 비나 눈이 오면 우산을 받쳐 들고 밥상을 들여와야 했다. 게다가 주인집이 외출하면 집을 지켜주는 조건이었다. 그래, 아무려면 어떠랴. 그래도 이제 비로소 독립해서 사는 신혼 첫 집이 아닌가! 좀 더 견디면 화장실과 부엌이 딸린 전세방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사 가는 날

그렇게 시작한 이사 다니기가 둘째 아이 낳기까지 일곱 번이었다. 그러나 힘들지 않았다. 30대 젊은 나이였으니까. 이사할 때마다 1톤 트럭에 고물장수 리어카 같이 뒤죽박죽 쌓아 올린 이삿짐을 싣고 아내와 둘이서 애 하나씩 안고 조수석과 보조석에 앉아 가는 자신의 모습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방 한 칸이라도 늘려가는 승리의 길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가.



◇꿈에 그리던 고층아파트로 이사했다.

이렇게 열네 번을 이사하고 겨우 방 세 개짜리 스물네 평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다. 아파트!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찮은 것이겠지만 Y씨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뿌듯함이었다.

Y씨 부부는 자린고비 소리 들어가면서 아끼고 아껴 서른두 평짜리 아파트의 주인자리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사의 대장정이 끝났다. 스물에서 하나 모자라는 이사행진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사할 여력이 없다. 기운도 없고 돈도 없다.

베이비부머, 주택의 절벽을 만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부분은 지긋지긋하게 이사 다니면서 어렵사리 집 한 채를 마련했다. 재테크에 눈이 뜨인 사람은 집을 여러 번 굴러서 제법 재산가치 있는 큰 집을 몇 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은퇴하면서 얼마간의 퇴직금과 집 한 채, 연금이 재산의 전부이다.

하지만 퇴직금은 자식들 결혼자금으로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갔다. 남의 자식들은 결혼자금도 스스로 잘도 마련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다. 결국 자식들 출가시키고 나면 남은 것이라고는 집과 연금뿐이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이다. 결국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한다.

노인소리 듣는 나이인데 어이 김씨~, 이봐 박씨~ 소리 들으며 허리 굽혀 일해야 근근이 먹고 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자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평생을 모아서 산 집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처분 방법도 복잡하다. 집을 줄여서 가거나 아예 귀농귀촌하거나 다시 전세살이하면서 남은 돈을 야금야금 까먹으며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생명과도 같은 집을 끌어안고 살자니 나라고 지자체고 손 벌리는 데가 너무 많다. 게다가 관리비며 공과금은 왜 자꾸 오르는지. 자식들이 '주택연금' 이야기를 한다.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에게 은근히 서운한 생각이 든다. 빈말이라도 생활비 보태겠다는 말을 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 그 형편을 왜 모르겠냐만 챙겨주려는 척이라도 하면 누가 덤터기라도 씌우겠다던. 알량한 집 한 채라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픈 마음에 선뜻 팔지도 못하고 '주택연금'에 들지도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그 자식들이 알기나 할까?

성문영 기자(sunggoodnews@naver.com)

홍천농촌문화터미널

官(관)과 민(민)을 연결하는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을 찾아서

소멸선제대응지역 홍천의 현실

홍천에 오래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을 아는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거기는 어디예요?, 뭐하는 곳인가요?” 하고 반문한다.



◇이강목 센터장

홍천IC 인근 ‘늘푸름한우프라자’ 옆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이곳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천군의 관광자원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간의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고 관과 민을 중개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유관 기관이라 말할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홍천군은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소멸위험지역, 소멸우려지역, 소멸선제대응지역, 소멸예방지역, 소멸안심지역, 소멸무관지역 6개의 분류에 따라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 포함되었다.

홍천군은 인구절벽, 저성장, 지속적인 고령화 인구 증가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되어 전체 노령화 인구가 70프로를 육박하고 향후 40년 이내 도시가 소멸되는 지역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농촌 발전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중간에서 주민의 역할을 개발하고 행정 협력과 네트워크 연계 등 핵심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 민간간의 연계 및 지원으로 살고 있는 마을분들과 협력하여 마을공동체가 지속 성장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하는 역할을 맡은 곳이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은 2019년 “홍천농촌지역 관광사업단”으로 출범을 시작으로 20년 홍천군 농정과와 운영에 관한 위수탁을 체결하고 농림부 주최 ‘주민주도형농촌관광콘텐츠개발 공모사업’에 전국 최우수 협의체로 선정되어 홍천군 관내 마을공동체의 주민 역할을 개발하고 행정과 협력하여 마을간 가교 역할 수행 역할을 하였고, 21년에는 농림부 주최 ‘지역단위농촌관광 공모사업’으로 홍천군 역량강화사업 전담 기관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22년 진행된 주요 사업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취지를 이해하고 단합과 발전을 위한 주민 주도에 의한 마을 현황 및 개선방안 발굴을 위한 5개 마을의 농촌현장포럼으로 시작되어 홍천 12개 읍면의 마을 기초 자원 조사를 통해 사라져 가는 농촌 마을의 오래된 역사와 고유한 자원을 ‘마을 자원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부터 마을 관광 자원까지 조사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0개 읍면의 199개리에 자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수요가 급증하는 대세에 부응하여 반려 동물 전문가 교육을 통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에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여행플래너 양성과정’ 교육에 이어, 홍천에 살아가며 작가의 역량을 가지고 활동하는 홍천의 인적 자원 8명을 발굴하고 글쓰기 수업과 출판 실습 과정을 거쳐 ‘홍천작가 양성과정’으로 올해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는 거짓말”을 제목으로 홍천에 관한 책을 3월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작가양성과정 출간책

대외적으로는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와 이에 따른 홍천군내 우수마을을 발굴하는 작업도 하였고, 마을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완료지구 브랜드 개발교육’으로 7개 마을과 업무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분석하여 마을 브랜드 개발을 통해 홍보 마케팅 교육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하는 중이다.

농촌문화터미널은 이강목 센터장을 중심으로 19년 1명으로 시작하여 행정처와 사업처 2개 산하에 교육사업팀, 공동체관리팀, 공모사업팀 3개의 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강목 센터장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마을 공동체 대표 80분 중에서 대표로 선출되어 예산 없이 시작하였으나 국가공모사업을 받아 제반 사업을 시작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신뢰도를 구축하다보니 군에서도 보는 시각이 틀러지고 위, 수탁 업무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며 홍천의 현실 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홍천읍을 제외한 지역을 가보면 마을 거의가 노인 인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이다. 나이를 차치하고 마을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을일을 하실 분이 없다. 뒷집지고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으로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마을 분들이 투입되는 것이 진정한 마을 사업이며,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화두로 자식들과 같이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주거 시설로 활성화하여 생산적인 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독거노인들이 같이 사는 농촌 마을을 만들어야만 소통도 되며 협력도 가능하고 소득 연계도 할 수 있다. 특히 마을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가 훨씬 양호하다며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찾아올 확률도 높아진다고 농촌의 현실을 말했다. 더불어 지난 3년간 대외적으로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홍천 내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홍천에 농촌문화터미널 홍보에 힘쓰겠다고 하시며, 현재 홍천 이외 다른 지자체는 농촌마을 전문가 지원 육성 기관이 없어 타 지역에서 ‘농촌 마을 사업에 관해 정리가 잘되어 있는 문화터미널’로 상주, 아산, 단양, 영암 등에서 벤치마킹해 성공 사례로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한다.

‘노인 한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한 곳이 불타는 것과 같다’라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말했듯이 노인이 돌아가시면 마을의 역사가 사라지며, 그것은 곧 홍천의 역사가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마을, 즐겁게 놀 수 있는 마을,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마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주민들의 힘으로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내며, 마을의 기록을 찾아내고 업데이트를 해서 사라지기전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마을 분들을 만나고 찾아가서 전달하고, 전달받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의 역할일 것이다.

서행연 기자(bonbon2202@naver.com)



◇홍천농촌문화터미널 전경

인생은 One Way Ticket (편도여행)

편도여행 그것이 인생이다. 가기만 하고 되돌아 올 수 없는 그것마저도 없이 떠난 편도여행에서 길을 잘못 들어 엉뚱한 곳을 헤매고 구렁텅이에 빠져 벗어나려고 허우적이며 인간힘을 쓰는 사람도 있다.

봄, 가을을 일흔 번 또는 여든 번이나 넘게 겪어보니 쓰고 달던 인생의 모호한 윤곽도 또렷이 나타난다. 만나고 헤어져 아쉽고 슬픈 인연도, 만나서 잘못 어긋나 괴로웠던 인연도 없지 않다. 하지만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더하고 빼보니 그럭저럭 좋았다. 무지막지할 만큼 파란 만장한 인생도 있고 금수저로 태어나 비단길을 걷는 인생도 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절경을 만나 황재한 기분인 적도 있다. 병고에 시달리기만한 세상을 살다가는 사람도 있다.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평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인생이라는 편도 여행은 우연과 불운들, 기이한 행운과 엇갈림의 연속이다. 편도 여행은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 불가피성으로 이 여행은 슬픔과 아쉬움 그리고 덧없음과 감미로움이라는 긴 여운을 남긴다. 나이 들수록 갈망하는 것을 줄이고 이미 손에 쥔 것들의 가치를 더 음미하며 나누어야 한다.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 본다.

기 자: 김영복 어르신은 올 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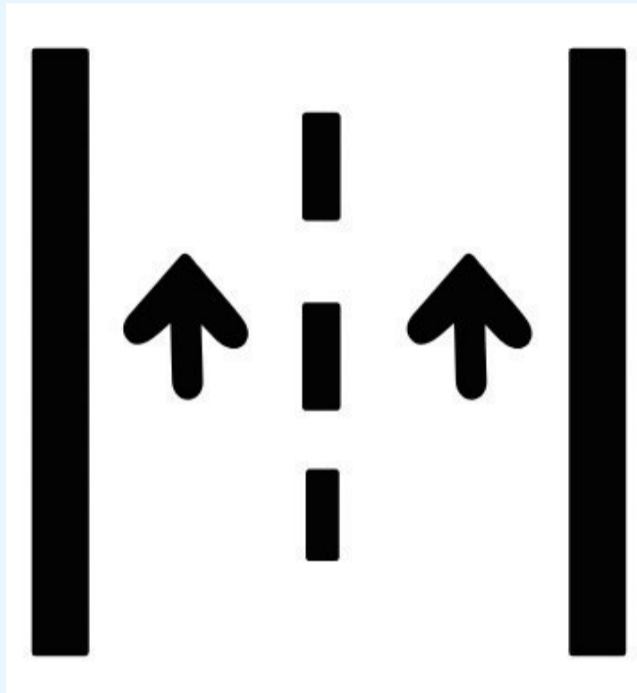
어르신: 예, 올 해 한 살 더 먹었으니 81세가 됐네요. 올 해부터는 한 살씩 줄여 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80이 되는가 봅니다.

기 자: 어르신은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어르신: 인생이라~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삶이란 연습이 없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에다가 고집 부려 망가진 것들이 복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속절없이 세월만 흐르고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러봐야 소용이 없더라구요.

기 자: 네~ 그런데 만약에 다시 되돌아 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르신: 다시 되돌아 갈 수도 없지만 다시 되돌



아간다면 그와 같이 허망한 삶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한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좋은가를 곱씹으면서 나머지 인생은 가벼이 가벼이 살려고 오늘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기 자: 네~ 어르신은 살아오신 것에 대해 후회가 많으신데 누구라도 후회 없는 삶은 없으리라 봅니다. 모두가 처음 살아보는 것이니까요.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어르신: 어려서부터 너무 가벼이 살면 안 되겠지만, 매사 무게 잡고 진지하게 사는 인생 재미없고 버겁다요.

기 자: 네~ 그러시군요, 김영복 어르신의 깨달음심이 참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진지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76세 서산재 어르신의 인생은?

기 자: 서산재 어르신은 지금까지의 삶을 잘 살아 오셨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르신: 하루 두끼 이상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두 다리 뻗고 단잠을 잤으니 그만하면 잘못 살았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지요. 생의 마지막에 나는 잘 살았노라 이야기 하고 싶소.

기 자: 네~ 어르신은 참으로 소박하십니다.

어르신: 어떤 인생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걸음마

부터 비단길을 걷고, 또 어떤 인생은 흑수저로 태어나 비탈길과 자갈길을 걷기도 하지요.

기 자: 서 어르신은 지금까지의 인생이 어떠하셨습니다?

어르신: 허허 인생무상(人生無常)이란 말이 있지요. 그저 세월은 어느새 눈 깜빡할 새 지나가 버리더군요. 절대로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는데...

기 자: 그러게요. 삶에는 연습이 없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 자: 앞으로 남은 생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르신: 할 수 있는 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기 바라고,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고 즐겁기를 바라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걸 더 자주 먹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할 수 있는 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네요.

기 자: 네~ 그러시군요. 소박하고 훌륭한 정신으로 잘 살아오신 서산재 어르신을 존경합니다.

기 자: 그런데, 서 어르신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인가요?

어르신: 아니요. 대화. 진실이 담겨진 대화요. 진실한 대화가 없으므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나고 미움,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사랑, 공감, 신뢰 이런 것들이 대화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기 자: 그러게요 대화만 잘 통하여도 서로 간에 관계가 좋아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인생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살아야겠습니다.

김영복 어르신! 서산재 어르신!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하십시오.

이경희 기자(kyung-hee@hanmail.net)

지역축제

홍천지역축제에 바란다



우리나라 지역축제는 1만 5,000개로 '지금쯤 축제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 정도만 생산적인 축제이고 나머지는 차별성과 효율성,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각 지방 단체들은 지속해서 해마다 축제를 한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행사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 및 대안을 찾아보자.

최근에 열린 "홍천뽕뽕축제"에 대한 건이다. 이 축제에 방문자가 방문해서 쓴 글이다. 축제장 실내 낚시터를 아이와 즐기려고 30분 동안 줄을 서서 표를 구매하니 3시간 뒤 표밖에 없단다. 추운데 줄 서기 전에 알려 주었으면, 그냥 포기하던지. 아이들과 30분 줄 섰기에, 그냥 갈 수도 없고, 3장을 4만 5천 원에 구매했다.

왜 이런 내용을 미리 홍보하지 않았을까? 시간을 때울 겸 홍천 시내에서 점심 먹고 와서 1시간을 또 기다려 드디어 우리 차례.

기다리는 동안 몇몇 할아버지들이 안에서 낚시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지만, 낚시대를 하나씩 받고 낚시를 시작하였다. 송어는 많은데, 이놈들이 도대체 미끼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1시간 가까이 아무리 낚시를 흔들어도 미끼에 무관심하거나, 아예 도망을 간다.

그러는 중에 끝나기 전에 옆에 계신 분이 잡는 사람 보니 입으로 문 것이 아니라 훌치기로 잡았다. 이게 낚시인가? 아이들도 당연히 못 잡았다.

빈손으로 나오는데 마음이 씁쓸했다.

나만 못 잡은 게 아니라 주변 분들이 거의 다 못 잡고 허탕만 쳤다.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빈손으로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짜증이 났다.

○○○꾼에 속아 털리고 나온 기분이라고 할까? 이제 지자체도 이런 ○○○짓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는 길 내내 기분이 나빴다. 아이들도 기분이 나빠서인지 짜증을 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줄을 서고 기다린 시간은 얼마인가?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남은 것은 휴일을 망친 짜증뿐.

플래카드에 흘러서 행사장에 들어간 것이 후회되었다.

앞으로 내 인생에 홍천은 없다. 라는 글(홍천○○○ 게시판)의 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

첫째, 낚시는 송어를 잡게 만들어야 한다. 조금은 운용의 묘를 살리어 송어에게 며칠간 먹이를 주지 않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요령이 필요했다.

둘째, 진행 과정에서 줄을 서기전에 지금 줄 서면 몇 시쯤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려 줘야 한다.

셋째, 방문자는 4시간을 기다려서도 1시간 동안에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서 불만이 없게 해야 했다. 운영 방법도 미숙하고 방문자를 즐겁게 만들지 못했다. 방문자를 너무 실망하게 했다. 물론 방문자의 말이 다 옳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방문자가 불만이 없도록 만든 것이 축제의 기본취지가 아닐까 싶다.

축제가 성공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또 축제의 주제 설정과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축제는 즐거워야 한다. 축제를 축제답게 만드는 요소는 재미와 감동이다.

홍천뽕뽕축제는 어떤 형태로든 슈퍼송어가 아니어도 송어를 잡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했다. 앞으로 열릴 홍천의 모든 축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축제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정체성이다. 홍천 축제장에 와야만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지역의 정체성이 함께 해야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계없이 한 달 간격으로 열리고 있는 축제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난 축제에 전면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초청 가수나 공연으로 주민을 모으는 SNS 방법만으로는 안된다.

단순한 이벤트는 줄이고 축제에 대한 질을 높이고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축제는 그 유형은 달라도 내용은 거의 일률적이다.

소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재에 맞춘 체험 콘텐츠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거의 비슷하다.

지방자치 이후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축제가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콘텐츠 부족, 정체성 부재,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미흡 등으로 대부분의 축제가 질적 성장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축제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상품이다.

홍천의 대표적인 옥수수 축제의 예를 든다면 옥수수 축제의 소재는 옥수수이고, 옥수수로 무엇을 알릴까? 가 콘셉트(Concept:주된 생각)가 되며, 옥수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테마가 있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

결국 홍천뽕뽕축제는 콘셉트가 부족했고 운영에 미숙이 나타났다. 앞으로 진행해야 할 지역 축제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김명국기자(kookcore@naver.com)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은 활기가 주민들은 활력이

**홍천 신장대리 도시재생사업 활발
협동조합 설립 지역대표축제 참여
‘추억의 도시락’ 관광객에 큰 인기
올해 축제학교·목공학교 등 운영 계획**

홍천군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홍천군 최초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장대리10-2번지 일원의 약 17만㎡의 지역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77억원(국비 100억원, 군비 67억원, 기금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원도심을 재생하는 마중물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선정된 ‘손 잡GO! 신장개업’이라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확장, 발전된 사업으로 신장대리 일원 상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업은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전국 생산량 1위의 홍천목재 및 건강한 녹색자원과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상업-문화 중심의 문화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고 특화상권 형성과 주거복지를 향상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장대리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최소영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만나 사업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 지난 2022년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었나요?

센터장 : 주민의 힘으로 쇠퇴한 원도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공교육인 ‘DIT 리빌딩 마을학교’를 운영했고 건강한 먹거리 사업을 위해 ‘건강꽃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공모사업’도 총 4건을 진행했고 ‘주민참여 권장과 도시재생 홍보를 위한 도시재생 캠페인’도 7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신장대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였습니다.

■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센터장 : 홍천군 신장대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첫 사업으로 제11회 홍천군 품품축제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센터에서 직원들과 함께 조합 첫 사업을 지원했을



◇ 도시재생 캠페인



◇ 최소영 센터장 인터뷰

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2021년 소규모재생사업 때 발굴된 도시락사업이 확장되어 올해 1월 조합에서 ‘추억의 옛날도시락’을 축제장에서 판매해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노란 양은 도시락 통에 정성을 가득 담은 음식들이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아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사업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에 단합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협동조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 장기간동안 참여하여 힘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계획은?

센터장 : 조합원들께서도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일한 결과물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홍천군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 저도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활기찬 모습과 그 추운 날씨에도 센터장님의 땀방울이 맺힌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2023년 올해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센터장 : 마을카페 매니저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목공 관련한 마을학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학교를 운영하여 축제를 개최할



◇ 협동조합 기본교육



◇ 신장대리 마을조합 도시락 사업(제11회 품품축제)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된 공모사업을 올해에는 더욱 발전시켜 도시재생사업과 시너지를 높이고 이제는 주요 이슈가 된 도시락을 브랜드화하고 편의성과 가성비를 높이는 아이디어 개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홍천군 실버세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센터장 : 베르나르 베르베르(소설가)는 마을에서 어르신 한분을 잃는 것은 큰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이 도시재생의 소중한 자원임을 명심하고 있으니, 홍천군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천군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영 센터장의 말처럼 도시재생사업에 경륜과 지혜가 가득한 실버세대들이 적극 참여해 활기찬 홍천, 활력 넘치는 홍천노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장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우리 노인세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복여 (boy1145@hanmail.net)

인터뷰&노인교통안전

어르신 교통안전예방 첫걸음

지난 2월 10일, 사)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홍천읍 분회(분회장 현종길)을 취재하기로 하고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기자 : 2023년 한해에도 사)대한노인회 홍천읍 분회장으로 역할을 담당하시게 된 것에 대하여



◇현종길 분회장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분회장 : 바쁜 와중에도 실버신문 기자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 : 홍천읍 분회장으로서 2023년 홍천읍 49개 경로당을 이끌어 가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이야기 해 주시지요.

분회장 :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각종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홍천읍 분회는 잘 아시다시피 10개 읍·면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경로당이 위치해 있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철저한 계획과 체계적 관리시스템으로 홍천읍을 포함하여 9개 면지역에 모범이 되는 홍천읍 분회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니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기자 : 홍천읍 분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노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분회장 : 작년에도 어르신 교통안전 지킴이 깃발 설치 행사를 개최했어요. 어르신의 대부분은 보행이 불편하여 걸음이 느리거나 보행신호가 꺼지기도 전에 횡단보도에 건너지 못하여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요.

기자 : 불편 듯 초등학교 앞에서 학부모 회원분들이 교통안전 지도하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다 건널 때까지 깃발로 차량을 통제하는 모습. 더욱이 다행스러운 것은 스킨존 지역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으며 스킨존 지역에서 사고발생시 운전자에게 처하는 불이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차량운전자들이 일단 멈추거나 서행한다는 거예요.

분회장 : 어르신 보행안전 구역도 더욱 확대되고 법규준수도 강화되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횡단보도를 거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저희들의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기자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홍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 홍천읍 현종길 분회장은 앞으로도 홍천군민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홍천군민 모두가 활기찬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안전 깃발과 함께하는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칙

첫째, 횡단보도 진입하기 이전 깃발 휴대하기
 건널목 건너 후에는 보관함에 깃발 꽂아 놓기
둘째, 통행은 반드시 건널목(횡단보도)으로 건너기
 녹색 신호등 점등시에 건너가기

셋째, 차량운전자는 교통안전 깃발 확인 즉시 정지하기
 녹색 보행신호등 점등시간 내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하는 보행 불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통안전 깃발을 횡단보도 좌우측에 꽂아 놓고 이 깃발을 들고 건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깃발은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멀리서라도 쉽게 인식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게 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깃발은 현재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앞 건널목 2개소에 시범 설치해 운영중이며 홍천읍내 교통안전에 취약한 지역으로 적극 확대 보급하여 주요 건널목(횡단보도) 14개소 인원 28명을 배치하여 어르신을 교통사고로부터 사전 예방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에 취약 지역에 해당되는 갈마곡2리 구역과 연봉2리 지역은 앞으로 건널목에 2명씩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오고와서 끝이 없고, 가고 가서 끝이 없이 오고 가는 기간을 세월(歲月)이라 하지만 세(歲 年)월(月 달)은 시(時)와 분(分)을 주로 가리키는 시간보다는 큰 단위이다.

끊임없이 오고가는 세월 속에 사람이나 생물이 나서 살아온 횡수를 세는 나이 단위는 연령(年齡)으로 돌, 살, 세(歲)라고 한다. 지구의 공전주기와 대응하여 사람도 나이라는 나이테가 하나씩 더해져야 하는 새해를 어릴 때는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누구나 나이를 더해갈수록 가는 해를 아쉬워하게 된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망설임 없이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이는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고, 누구는 어려서 불만일 수도 있다.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나이에 따라 해야 할 역할이 암묵적으로 너무도 분명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어릴 때는 그 나이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이를 먹길 바라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는

장벽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만(滿) 나이를 사용하지만,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와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를 함께 사용한다. 세는 나이란 태어나면 바로 1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1살씩 추가되는 것을 말하는데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는 불과 며칠 사이에 새해가 되면 2살이 되는 것이라 역울한 나이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세는 나이를 쓰는 나라에서는 나이

올해는 나이가 무거워지는 것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반가운 소식으로 나이를 먹지 않아도 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 한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써오던 세는 나이와 연 나이(법적나이)를 모두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하는 “민정재정안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사용이 공식화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는 나이로 나이를 덩으로 먹었던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지 않고 첫돌생일이 되어야 1살이 되는 만나이로 공평하게 통일이 되니 올해는 역울한 나이가 예누리 되며, 1살 더 먹지 않아도 되는 넉넉한 한해가 될 것이다. 이를 기회로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다며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던 내 나이를 올해부터는 내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게 되었으니 세월은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은 오는 것이라 생각하며 끊임 없이 찾아오는 세월을 기쁘게 맞이하여 즐겁게 살아가면 될 일이다.

나이 먹지 않아도 되는 해

것들이 너무 많아 낙심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젊을 때엔 지나치게 자신이 어린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서 지나치게 늙어 버렸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게 많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려서는 더 있다가 나이 들면 해야겠다는 “나이가 들면”과 “이 나이에 무슨.” 생각으로 선불리 일을 시작하기 힘들다. 나이가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한계이자

에 따른 서열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나이간격에 따라 친구가 될 수 있고, 형뻘과 아저씨뻘 부모대 할 아버지대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소통하는 언어도 이에 해당하는 존칭어를 맞추어 써야한다. 참고로 나이에 따른 시기 구분은 만 나이 기준 0-6세는 유년기, 7-18세는 소년기, 19-32세는 청년기, 33-44세는 장년기, 45-64세는 중년기, 65세 이상을 노년기라 칭하고 있다.

게이트볼

건강100세시대, 게이트볼의 매력

마을 곳곳을 두루 살펴 집중하고 다니다보면 미니골프장을 연상하게 만드는 게이트볼장을 곧잘 만날 수 있다. 어제는 제법 기온도 올라가고 날이 풀리는가 싶더니 하루아침 사이에 쌀쌀한 날씨로 자주 뒤바뀌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저기에 대여섯명이 줄을 길게 늘어서 (T)자형 스틱으로 공을 살짝 쳐서 경기장 3곳을 차례로 통과하는 사뭇한 발걸음도 눈에 띄기 시작한다.

결결결 여기저기에 울려 퍼지는 굽직한 웃음소리와 어우러지는 조화는 한바탕 무슨 재미있는 활동이 펼쳐지는 기대감과 보는 사람으로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나도 모르게 깊이 매료된다. 게이트볼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두번 보고 익힌 것만으로 끝이 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스포츠로 다가와 있다.

가로 20m, 세로 15m 크기에다가 시작라인 4m 앞에 1게이트 직4각 게이트가 있고 그 뒤를 이어 같은 크기의 2게이트가 있고 3게이트가 있다. 게이트는 통과할 때마다 1점씩 3점이 주어진다.

마지막 골풀이 경기장 맨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20cm길이의 긴 막대가 있다. 골풀을 타격하면 그것을 얻고 총 합계 5점으로 경기가 막을 내린다. 이렇듯 게이트볼 경기규칙과 방법은 처음 접하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내일모레 구십을 바라보는 나도 따라하다보면 금방 배울 수 있으며 쉽게 이해가 되듯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먼저 공격하는 팀은 적색공을, 상대팀은 백색공을 하며, 빨간색 공에는 홀수 1,3,5,7,9라는 숫자가, 하얀색 공에는 2,4,6,8,10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어 차례대로 공을 친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공은 점수를 내지 못하고, 상대편 공을 아웃시키지도 못

한다.

젊어서부터 운동을 즐겨했던 사람에게는 두말한 나위 없이 유익한 운동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어서조차 돈 걱정, 자식걱정에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우리 같은 나이많은 노인들에게는 게이트볼 막대를 잡고서 어디론가 돌려 치는 것으로도 스트레스 해방구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상대편 공을 아웃시키는 희열까지 맛볼 수 있다면 게이트볼의 진정한 매력을 소유했다고 본다.

매사가 즐겁게 사고(思考)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평소에 시간을 내어 운동(運動)하며 하루에 한 가지씩 나만의 취미활동을 가져본다는 것은 이 시대에 여가선용과 노년건강의 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건강100세 시대는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김동식 기자(dong-sik@hanmail.net)

미래금융

1960년대 한국의 금융자본



1960년대는 4·19혁명과 그 이듬해 5·16 군사정변에 의한 박정희 군사 정부로 시작되었다. 군사 정부는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해 국민의 민생고해결과 자주경제 재건을 목표로 내세웠다. 4·19로 집권한 민주당과 결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군사정부는 우선 경제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한 노력으로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국내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66)의 중점은 전력·석탄의 에너지자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며, 다른 한편으로 농업생산력 증가로 수출국가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외국의 차관으로 시멘트, 비료, 정유, 전기, 철강 등 산업 발달에 바탕이 되는 산업을 육성시켜 수출에 노력을 기했다. 그 결과 이 시기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7.8%를 뛰어넘었고 1인당 GNP도 125달러로 증가하였다. 수출도 호조를 보이며 국민소득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성장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2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였다.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71)의 핵심 과제는 식량자급화와 산림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중화학공업, 건설 산업 육성 등으로 2차 산업에 방점을 두어 수출국가로서의 지속을 추구하였다. 이에 필요한 소요자금 9,800억 원 중 국내 자

금이 6,029억 원, 외자가 14억 2,100만 달러였는데, 6억 달러가 한일국교 정상화로 들어온 자금 이었고 대일 청구권 금액 8,000만 달러가 포항제철(現 POSCO) 건설에 쓰였다.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9.6%였고 1인당 GNP는 262달러로 늘어났다. 이 기간에는 미국의 요청으로 월남전 파병이 이루어졌는데, 월남전 특수로 벌어들인 경제적 효과는 무려 5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경부고속도로 개통도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저임금으로 근로자와, 저곡가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있었다. 저임금을 위해선 저곡가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월남전 특수가 있었지만 과월 장병들은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신체적 고통을 안게 되었다.

군사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성장금융체제를 정립하고자 했다. 1961년 부정축재법에 의해, 민영화된 일반 은행들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1961년 7월에는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여 중소기업금융과 서민금융을 담당케 하였다. 같은 해 농업협동조합을 발족시켰는데 이는 농업은행의 신용업무와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통합한 것이었다. 1962년에는 서민금융육성책으로 국민은행을 설립하였다. 이른바 관치금융의 시작이었다.

군사정부는 국민들의 자본을 보다 쉽게 산업에 유입시키고자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대한증권거래소(現 한국증권거래소)의 발행주식은 1962년 1월 증권거래법 공포를 앞두고 시세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어서 대한증권거래소가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문에 이 '대증주'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앞 다투어 배정받고자하는 꿈의 블루칩 주식이 되었다. 각 증권사들은 커다란 레버리지(당시 주식은 2개월 후 정산하는 선물거래 성격이어서 일정 비율의 증거금으로 대량의 주식을 매수, 매도할 수 있었음)를 이용해 대량으로 매집해 놓은 상태라 유통량도 극히 적었다. 유상증자 공모가는 액면가보다 29배 높은 14환 50전이었는데 거래량이 정점에 달했던 1962년 5월에 마침내 거래소에서 각 증권사들의 매물폭탄이 이루어졌다.

즉, '대증주'를 매도하려는 사람은 넘쳤고 매수자는 없었다. 이 후로는 휴장에 휴장을 거듭하며 1963년 5월 9일 망신창이가 된 거래소는 주식회사 형태에서 공영제로 다시 문을 열었다. 재개장 당일 '대증주'는 2전 2리로 무려 공모가 대비 98%가 낮아진 가격이니 사실 휴지나 다름없었다. 해방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경험한 주식투자에 대한 최초의 배신감이었다. '증권과동'이라 불리며 국민들에게 '대증주'로 사기 친 거액은 공화당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